

드럼 연주를 위한 그립의 대한 연구 -매치드 그립과 트래디셔널 그립 분석-

양성렬,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tmdwnsqe@daum.net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n grips for playing drums -Matched grip and traditional grip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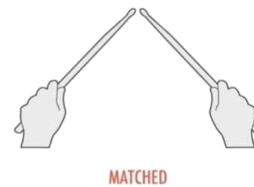
Yang-Seong-Ryeol,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약

음악에서 빠질 수 없는 리듬은 보편적으로 리듬악기로 표현된다. 그 중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드럼은 현재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 하였다. 드럼을 칠 때 가장 기초라 부를 수 있는 잡는법, 즉 그립을 제일 먼저 배운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매치드 그립은 손목과 손가락 사용의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사용법이 다른점을 분석하기위한 목적이었고, 레귤러 그립이라 불리는 트래디셔널 그립의 분석을 함으로써 두 그립의 다른점을 논의하여 분석함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드럼을 연주 하기전 그립의 대해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1. 서론

음악에서 빠질 수 없는 리듬은 드럼이 중심을 잡으며 만들어져 가고 있다. 현대까지 많은 리듬이 만들어져 다양한 리듬과 드럼만의 테크닉으로 여러 가지 플레이가 만들어지고 있다. 드럼을 연주하기 위해 스틱을 잡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 드럼 연주의 가장 기본적인 그립이라 불리는 매치드 그립은 현재까지도 드럼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 가르치는 그립이다. 하지만 매치드 그립 이전에 트래디셔널 그립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 매치드 그립과 트래디셔널 그립의 집중 분석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림 1] 매치드 그립

매치드 그립은 양손을 동일하게 잡는 그립이다. 음악에는 락, 팝, 펑키 등 강한 스트로크가 필요할 때에 많이 사용된다. 스틱을 부드럽게 잡은 상태로 어깨와 팔꿈치에 힘을 빼고 연주를 한다. 이 그립은 탐탐이나 심벌등 빠르게 연주할 때 안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다.

그립 잡는 방법은 스틱의 1/3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스틱을 힘을 빼고 감싸듯이 잡아 준다. 매치드 그립의 중요한 점은 연주를 할 때 새끼손가락이 펴져 있어서는 안된다. 새끼손가락이 펴지게 되면 스트로크를 할 때 세 손가락이 아닌 두 손가락으로 연주하게 되어 매치드 그립의 장점인 강한 스트로크를 하는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매치드 그립 중에서도 잡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2. 본론

2.1 매치드 그립 (Matched Grip)

2.1.1 저먼 그립 (German Grip)



[그림 2] 저먼 그립

저먼 그립은 손등이 하늘을 보고 잡는 것이 특징이다. 손가락보다 손목을 많이 사용하며 연주할 때 터치가 큰 힘을 받아 큰 볼륨을 만들 수 있다. 드럼을 처음 배울 때 손목 사용의 적응과 힘을 키우기 위해 가장 먼저 배우는 그립이다.

2.1.2 아메리칸 그립 (American Grip)



[그림 3] 아메리칸 그립

아메리칸 그립은 손등을 45도 각도로 틀어서 잡는 것이 특징이다. 저먼 그립과 프렌치 그립의 사이라 불리기도 한다. 손목과 손가락의 밸런스를 적절히 사용하여 저먼그립 보다 편안하고 손목의 힘과 손가락 제어의 이점을 모두 사용하기 좋다. 보편적으로 하이햇과 탐탐 연주에 사용한다.

2.1.3 프렌치 그립 (French Grip)



[그림 5] 트래디셔널 그립

[그림 4] 프렌치 그립

프렌치 그립은 엄지손톱이 하늘을 보는 그립으로써 주로 손가락을 주로 쓴다. 엄지와 검지는 시소의 중심역할을 함과 동시에 움직임의 핵이 되기도 한다. 특히나 엄지의 중심과 스틱의 중심이 평행이 되면서 일치가 되어야만 더욱 리바운드가 잘 된다. 엄지와 검지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리바운드가 안 된다. 나머지 세 손가락들로 스틱을 튕겨주면 훨씬 더 스틱이 잘 튀어오를 것이다.

2.1.4 공통점

위 그립들의 공통점은 손목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손가락도 어느 정도 쓰인다. 즉 리바운드만으로 사용하지 않고, 손목만으로도 쳐서는 안된다. 조금이라도 보조적인 동작이 필요하다. 그립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스틱을 올리는 힘과 내리는 힘의 밸런스다. 스틱을 높게 들지 못하면 파워가 적어진다. 손을 올릴 때 팔목의 위쪽 근육이 쓰인다. 높게 든 스틱을 멈추게 하고 다시 내릴 때 팔목 아래쪽 근육이 쓰인다. 스틱을 올리지만 하고 내리는 힘이 너무 약하면 올릴 때만 치중되는 나머지 스틱이 타면에 닿기도 전에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내리는 힘이 적다면 스틱이 올라가다 멈추고 내려가야 하는 시점에서 스틱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다 손목이 꺾이게 된다. 올리는 힘이 없고 내리기만 하면 손목이 아래로 꺾여 부상 당하게 된다.

어떤 그립을 사용하던 중요한건 스틱을 손바닥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꼭 잡으면 안된다. 리바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손가락들과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손바닥과 스틱과의 공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게 잡아야한다

2.2 트래디셔널 그립 (Traditional Grip)

트래디셔널 그립, 다른 말로 레귤러 그립이라 불리고 있는 이 그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드럼 세트가 나오기 이전 1900년대 나폴레옹 군대의 군악대들이 마칭을 할 때 쓰던 그립이다. 유럽에서 시작한 이 그립은 양손의 잡는 방식이 다른데 그 시대에는 북을 대각선으로 메고 쳤기 때문에 편하게 연주하기 위해 왼손과 오른손의 그립이 달라야 했다.

오른손은 매치드 그립의 저면 그립처럼 잡고 왼손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스틱을 끼우고 네 번째 손가락을 구부려 두 번째 마디에 스틱을 얹혀놓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손가락은 네 번째 손가락을 받쳐 주고, 검지와 중지를 스틱에 살며시 올려놓고 엄지와 검지를 살며시 쥘다. 이때 왼손은 동그스름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3. 결 론

매치드 그립은 대중 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그립이다. 스트로크를 할 때 손목과 손가락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일반 싱글 스트로크 할 때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다. 또한 팔꿈치와 어깨를 사용하여 모션을 크게 할 수 있어 파워가 강하다. 루디먼트와 같은 테크닉을 표현함에 편하지만 물을 표현함에 어려움이 있어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드럼세팅을 할 때 자유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팔의 움직임과 파워를 생각해보면 록음악과 퍼포먼스 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트래디셔널 그립은 왼손 스트로크의 포인트마다 파워의 차이가 난다. 보편적으로 손목과 팔꿈치만 사용하기 때문에 양손의 밸런스가 다르기 쉽고 매치드 그립보다 파워가 약하다. 테크닉적으로 불편한건 없지만 엇박을 연주할 때 약한 감이 있다. 드럼 세팅의 있어서 탐탐 연주할 때 팔의 움직임이 제한이 있어서 세팅이 보편적으로 낮게 세팅한다. 재즈, 마칭, 클래식 등을 연주 할 때 사용하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드럼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립은 어떤 스타일에서 그립을 적절히 사용하여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연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스트로크를 하면서 부상을 방지하여 올바른 연주도 도와주기 때문에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논문이 드럼 연주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 문헌

[1] 한호석, 「드럼 세트 연주 시 그립이 연주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complex effect of grip on performance when playing a drum set.」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권 3호, [2022년]

[2]노호현, 「그립대분석」 특강 [2012년]

[3]젠 메차펠토, 「렛츠 드럼 = Let's drum : 드럼의 기초부터 밴드 연주까지, 초보자를 위한 드럼 코스」 서울 : 시그마북스, 2016년

[4]양의정, 「마칭밴드 지도방법 연구 : 기본동작과 배치방법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년], [국내석사]